

일본 대학에서의 인도학 불교학 동향

Trends in Buddhist and Indologic Studies at universities in Japan

-인도학, 불교학의 다원적 공존 사상을 찾아서-

釋 悟 震(석오진)*

- I. 서론
- II. 일본 인도학 불교학자 인물상에서 본 동향
- III. 학계열충에서 본 동향
- IV. 일본 불교계 주요 사립(종립)대학에서 본 동향
- V. 일본 학계 주요 연구 학술학회에서 본 동향
- VI. 금후의 한일 불교학의 문제점 제기

I. 서론

일본의 대학¹⁾에서의 인도학²⁾ 혹은 불교학 연구는 일본이 근대화 교육을 시작

* 석오진(釋悟震 Seok, Ohjin) / 서울 출생. 일본 동경 고마자와(駒澤)대학 대학원 인문과학 연구과 인도불교학 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동경대학 강사. 동경대학 동양문화 연구소 협력 연구원.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재단법인 동방연구회 연구원, 동경 동방학원 강사, 일본 스루가다이대학 강사. 스리랑카 국립 Peradeniya 대학 Visiting Scholar.

주요 저술: 『기독교인이 불교인가역사의 증언』, 『파아나두라 대논쟁』, 『붓다 안의 예수, 예수 안의 붓다』, 『비교 종교 사상론』, 『종교와 사회윤리』 외 다수.

- 1)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교”는 각각 지칭하는 의미가 다르다. 일본의 “대학”은 한국의 일반 “대학교”를 의미하는 반면, “대학교”는 단과 대학 또는 전문 대학을 의미한다. 또한, 각각의 설립 모체에 따라 그 호칭이 구별된다. 즉, 일본 “학교 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을 4년제 대학교 또는 2년제 단기 대학을 “대학”으로 부르며, “학교 교육법”에 의거치 않고, 정부 각 부처의 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대학정도의 교육 수준에 있는 대학을 “대학교”로 호칭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일본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기상대학교”, 방위성(한국의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대학을 “방위(防衛)대학교”, 해양청에서 설립한 대학을 “해양대학교”, 수산청에서 설립한 대학을 “수산대학교”라고 부르고 있다.
- 2) 「인도학」이란 명칭은 일본학계에서는 일반적인 학문 계열의 인도 전문영역의 칭호로서 사용

한 소위 명치유신³⁾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대정(大正)시대에 대학교의 기본 제도를 천황의 칙명으로 제정한 「대학령(大學令, 다이가구레이)」이 1918년에 공포된 것을 기점으로 기존의 제국대학(帝國大學)이외의 공립 및 사립대학 또는 단과대학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많은 대학들이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서, 불교계의 각 종파들도 각각 종지(宗指)를 앞세운 소위 종립대학(宗立大學)이 설립을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수의 인도학 및 불교학 전문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현재 약 3,000 여명의 학자들이 활동하여 일본 인도학과 불교학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 숫자는 아마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1918년 대학령 공포 이전 국립 종합대학인 1886년 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제정에 의해 1877년에 일본 최초로 창립한 東京大學(Tokyo Daigaku)을 개칭(改稱)한 帝國大學(Teikoku Daigaku)에서 시작되었다. 이 제국대학은 1897년 京都(Kyoto)제국대학을 창설하면서 동경제국대학으로 그 명칭이 변한다. 이후, 토오호쿠(東北), 큐우슈(九州), 홋카이도(北海道),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京城(현 서울), 台北(현 대만)과 같은 각 지역에 각각 제국대학이 설치되었다.

하고 있다. 이 인도학 연구는 18세기에 서구 여러 나라 특히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 통치를 위해 인도문화, 종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유럽은 미지의 동양적 예지에의 동경 사상에 가득 차 있을 때이기도 했다. 인도학의 성립에는 이같은 서양의 사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학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784년에 인도 뱅갈 아시아협회(Asiatic Society)를 창설한 윌리엄 존스(Sir William Jones: 1746 - 1794)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인도 동아시아 회사의 서기로 일하고 있던 찰스 윌리엄스(1749-1836)는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배워, 1785년, 힌두교 성전인 「바가바트 기타」를 영문 번역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근대 서양어로 직접 번역된 최초의 문헌이다. 이 번역을 계기로 서양인들이 인도문화 또는 그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어 영국을 대표하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인도학 전공학과가 서양학계에서도 초창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설립은 빨랐다. 이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인도학을 공부하기 위해 동북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19세기 중엽부터 유학을 시작한 학자중 대표적인 인물이 본 논고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동경제국대학 출신인 난조 분유우(南條文雄), 다카쿠수 준지로(高楠順次郎)박사 등의 일본 학자들이었다. 그들이 습득해 온 인도학은 일본 대학에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맥락과 전통을 이어오는 일본 대학에서의 인도학이며 불교학이다. 기본적으로 「인도학」은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언어학, 역사학, 사상학, 종교학, 문헌학, 인류학, 고고학, 인도철학, 인도문학 등을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학문으로 특히 인도 불교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3) 明治維新(메이지유신): 1867부터 1912년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종래의 무신 정권에서 입헌 군주국으로 과감히 국가 재편성을 시도한 개혁운동으로 쇄국정책에서 개방정책으로 전환시켰으며, 오늘날의 정치, 문화, 경제, 사상, 과학을 위시한 인문학 등 근대 일본문화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시발점의 계기가 된 것이 이 메이지 유신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제국대학 중에서도 불교학 강의를 가장 최초로 시작한 곳은 동경제국 대학이었다. 당시 최초의 불교학 강사는 조동종(曹洞宗)승려 하라 탄잔(4)이었으며, 최초의 불교 강의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강의였다. 당시 명치유신 시절은 일본 불교 최악의 폐불 정책으로 불상을 파괴하고 불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1878년 2월)에 일본 최초의 불교 강의를 진행되었다는 것은 일본 불교도 및 불교학계로서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경제국대학에서 강의를 시작된 불교 강의는 여러 제국대학에 각기 「인도철학」 및 「인도학」과 설립을 통해 불교학 연구가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학에 있어서 불교학 연구는 불교를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해 온 구 제국대학 특히 동경대학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본 불교학계를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통은 가장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여기서 “주도해 왔다”는 과거형으로 설명한 이유는 근년에 들어 그 양상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교계 각 종파가 세운 소위 종립대학들이 각각 불교학적 발전을 독자적으로 이끌어 내며, 많은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까지는 각 종립대학들이 구 제국대학의 학문적, 인적, 재정적인 면 등 다방면에서 열악한 편이었기 때문에 각 국립대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경이 역전되어 각 종립대학이 연구 환경이 국립대학보다 양적 질적 또는 경제적으로도 향상의 경향이므로 사필규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일본 인도학 불교학자 인물상에서 본 동향

현재 이러한 일본 불교학 연구 환경의 결과는 지금까지 역사적, 인적, 지적, 경제적 및 다방면으로 여유가 있었던 국립대학의 공로, 특히 동경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의 학술적 공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등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명치유신 이후의 불교학 연구의 동향을 불교학자를 중심으로 인물 본위로 검토해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먼저 일본의 근대 불교학은 근대 이전부터의 전통적인 불교 연구상에서 서양근

4) 原坦山(1819-1892): 일본 불교 선종의 하나인 조동종(曹洞宗, 소우토우슈우)의 승려로 동경대학 인도 철학과에서 최초로 불교 강의를 시작해 10년간의 교수 생활과 조동종 관장(정종)직을 역임하는 등 걸출 학승으로 그 명성이 높다.

대의 실증적 또는 객관적인 학문체계와 방법론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일본 최초로 불교 경전의 원전인 산스크리트어 텍스트 존재에 주목하고, 주요한 한문 경전과 비교 연구를 해 그 성과를 유럽의 학계에 넓게 소개하는 등 근대적인 불교 연구의 기초형성에 막대한 역할을 한 난조 분유우(南條文雄:1849-1927)이다. 그는 1889년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최초로 <문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인도학 및 불교학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난조 박사와 같은 시대의 다카쿠수 준지로(高楠順次郎)박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 불전을 연구한 후, 팔리어 및 산스크리트어에 의한 인도 고전 연구 방법을 일본에 전수시키면서 근대적 인도학 및 불교학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⁵⁾ 이상의 역사적 경위를 포함해 별지 「자료 1 【일본 불교학자 인물상에서 본 동향】」을 참조하면서 이하 인물을 중심으로 그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타카쿠수 준지로(高楠順次郎, Takakusu Junjirou)[1866-1945]

인도학, 불교학자. 본래의 성씨가 사와이(澤井)였으나, 1887년 고오베(神戸)의 타카쿠스(高楠) 집안의 양자가 되어 타카쿠스가 되었다.

그는 일본 동경제국대학을 졸업 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하면서 막스 뮐러 밑에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귀국 후 1897년 동경대학에서 범어(梵語)학 강좌를 창설했다. 그는 불교 정신에 입각한 여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1924년 무사시노(武蔵野)여자 학원을 창설했으며, 동경에 위치한 동양대학(東洋大學) 총장 등도 역임해, 당시의 불교학을 리드하고 있던 와타나베(渡辺海旭: 1872-1933)와 함께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100권을 간행했다. 이러한 학술적 공로로 인해 1944년 일본 천황으로부터 문화훈장(文化勲章)을 수여 받았다. 그의 공적은 근대 불교학 연구의 선구자적 역할로 인해 오늘날 세계적으로 불교학을 과학화하는데 많은 평가와 함께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2) 아네자키 마사히로(姉崎正治, Anezaki Masaharu)[1873-1949]

종교학자이자 평론가이며,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1896)하였다. 동경제국대학에 종교학 강좌를 처음 개설해, 이를 담당했다(1904). 그 후 미국 하버드 대학, 시카고 대학, 예일 대학과 프랑스 대학에서도 강의하였으며, 동경대학 명예교수(1934)였다. 일본 근대 과학에 의한 종교학 설립자임과 동시에 문예 평

5) 前田恵學, 「팔리어 불교 문화학」 제19호, (팔리어 불교문화학회, 2005년12월), p.1.

론 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으로 인해 “문에 평론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전공인 종교학뿐만이 아닌 불교학 연구 업적에도 정평이 높다. 또한 그는 로맨틱 신비주의를 설하고 일본 문화를 해외에 소개한 공적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인도종교사』(1897), 『불교성전사론』(1899) 등 많은 저서 및 논고를 남기고 있다.

(3) 쓰지 겐노스케(辻善之助, Tsuji Zennosuke)[1877-1955]

일본 역사학자로서 1899년 동경대학을 졸업 후, 역사 사료편찬 계원으로 근무한 후 사료편찬원(史料編纂員), 사료편찬관(編纂官), 사료사무 주임(主任)을 역임하였다. 1929년 해당기관이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사료들의 편찬 출판에 힘을 기울였다. 동경대학 교수를 겸무해 국사학 연구를 지도함과 동시에 일본불교 연구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역사학적으로 불교를 연구하였으며, 그의 정확한 역사학적 불교연구는 정평이 있다. 1932년에는 일본 제국 학사원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1938년 정년퇴직 후에도 명예교수가 되어 연구와 교육 및 각종 전문위원으로 계속 활약해, 1952년에는 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주요 저서로 『일본문화사』(11권, 1948~53), 『일본불교사』(10권, 1953)등이 있다.

(4) 기무라 타이켄(木村泰賢, Kimura Taiken)[1881-1930]

인도 철학자임과 동시에 불교학자로서 일본 단일 종단으로서 최대의 종단이라 할 수 있는 조동종 승려이다. 동경대학을 졸업하고(1909년), 동시에 동 대학에서 강사(1912), 부교수(1917년)로 재직하고, 유럽 및 미국에 유학(1919-1922)하여 문학박사(1922) 학위를 수여받았다. 동경대학 교수로 취임해 인도 철학을 담당(1923)했다.

그는 그 당시까지 한문 번역 불교 경전만을 자료로써 정통 바라문 철학을 논했던 학풍을 벗어나, 직접 산스크리트어 또는 팔리어라는 인도의 고전어로 된 원전 자료를 구사해,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다. 불교사상 연구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동경대학 교수 현직인 4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만약 그가 정년 또는 49세 이상의 장수를 했다면 일본 불교학 또는 인도철학 연구 발전에 더 색다른 연구방법론을 제기하여 오늘날의 일본 불교학 및 인도 철학계에 또 다른 연구 학자를 배출시켰을 것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저서로서 『인도철학종교사』(1913), 『인도6파철학』(1915), 『원시불교사상론』(1922), 『아비달마론 연구』(1922), 『소승불교 사상론』, 『대승불교 사상론』 등, 49세라는 짧은 생애에 비해 많은 논고와 저술을 남기고 있다.

또한 그는 '인도 종교사학을 배우고, 경전에 대해서도 本文 비판을 잊지 않고, 학적인 문헌에 의해 합리적인 입장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실증적인 논리에 매달리지 않고, 종교사상의 본질을 바로 잡아 직관하고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이것은 특히 근대 불교학의 개척기였었던 당시에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그는 몸에 익힌 불교의 선적(禪的)인 교양에 의한 심성도 컸다고 볼 수 있다'⁶⁾고 그를 재평가하며 그의 요절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의 불교학자로서의 재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Ui Hakuju) [1882-1963]

인도 철학 및 중국 및 일본 불교학자임과 동시에 바로 앞에서 거론한 기무라 타이켄 박사와 같이 우이 하쿠쥬는 조동종 승려로서 동경제국대학을 졸업(1909년)하고, 동 대학원에 진학하여 독일, 영국, 인도에 유학(1913년)하였다. 귀국 후 동경대학 문과대학 강사가 되어(1919년), 문학박사(1921년)가 되었다. 동북제국대학 교수(1923년) 재임 중 동경대학 교수로 있었던 기무라 타이켄 박사의 요절로 인해 그 후임으로 동경대학 교수가 되어 인도철학 제1강좌를 담당하게 되었다(1930-1943). 그는 기무라 박사와는 달리 동경대학의 전통적 학문인 문헌연구에 전념해 일본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인도철학, 불교연구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일본 사상 처음으로 그 방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공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저술로서 『인도철학연구』제1-6권 (1924-1930), 『인도철학사』(1932), 『섭대승론연구』(1935), 『불교범론(汎論)』(2권), 『동양연구』 『유식30송釋論』 『陳那著作 연구』 『유가론 연구』 등이 있다. 이상의 저술 및 논문은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가 편집한 『宇井伯壽博士 저작전망』(1964년)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953년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이 우이 하쿠쥬 박사의 직계 제자로서 그 학문적 계승자로 알려진 학자가 다음에 거론하는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이다. 특히 나카무라 박사는 우리 한국에서도 인도철학 또는 불교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름을 기억할 만큼 널리 알려진 학자이므로 조금 더 상세히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일본 대학에서의

6) 『木村泰賢全集』 제1권, p.2.東京, 法輪閣, 1969년.

불교학에 끼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6)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Nakamura Hajime)[1912-1999]

나카무라 하지메는 인도 철학자이자 불교학자로서, 비교 사상연구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약력을 살펴보면, 1936년 東京大學 문학부 인도철학 범문(梵文)학과 졸업. 1941년 동 대학원 인문과학 연구과 인도철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1943년 동경대학 교수. 1964년-1966년 동경대 문리대학장을 역임했다. 인도 철학전공학자로서는 처음이었으며, 그 후 문리대학장직을 맡은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 이밖에 객원교수로 미국 하버드대학(1963-64), 스탠포드 대학(1951-52), 미시건 대학(1959), 플로리다 대학(1961), 하와이 대학(1959, 1964, 1969), 인도 델리대학(1952), 월남 반한대학(1973)과 일본 각 국립대학 등에서 강사를 역임해 전 지구적으로 그의 학문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1943년 동경대학 유사 이래로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1957년 일본 학사원 은사상(恩賜賞), 1974년 일본국 자수상(紫綬賞), 1977년 일본국 문화훈장, 1977년 마이니치(毎日)출판 문화상 특별상, 1983년 일본국 훈1등 서보장(瑞寶章), 1983년 국제 문화상 국제 교류기금상, 1991년 일본 번역 문화상등 다수를 수상해, 일본 인문학계 학자를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 특기 할 수 있는 것은, 동경대학을 정년퇴직한 후 수많은 대학에서 교수 초빙이 있었으나, 그 일체를 거부하고 <재단법인 동방(東方)연구회>(일본 문부 과학성 시험 공익 연구원) 이사장 및 동방학원 원장직을 고수하면서 후진 양성과 인도학 불교학 또는 비교사상학 육성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금 현재도 그 맥락이 이어져 일본 인도학 불교학계의 인재를 배출시키고 있다. 나카무라 박사와 한국의 학자들 중에도 많은 반연이 있었으나, 특기할 수 있는 인물로서 김지건 박사(1931-2001: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교수)(당시)를 그 필두로 들 수 있는 인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저술 등에 관한 상세함은 다음의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학술적 업적에서 본 일본 불교학의 동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으나, 종합적으로 거론한다면, 일본어 저술 600종, 영어 독일어 등 외국어 저술 180종이 있다. 특히 한국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가 30종을 넘고 있다. 일본인 학자로서 한 사람의 저술이 이같이 많은 번역본이 출간된 것은 아마도 다른 예를 찾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과 같은 약력으로 비추어 보아도 나카무라 박사의 학문적 업적이 얼마나 방대하며 사회적 또는 사상적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는가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나카무라 박사의 업적은 일본 인도학 불교학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불교를 학문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환경에 있는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른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조금 더 상세히 나카무라 박사의 학술적 업적에서 일본 불교학의 현대적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의 학술적 업적에서 본 일본 불교학의 동향

나카무라 박사의 광범위한 연구 영역은 다른 불교학 및 인도철학자들과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대적으로 보아도 그의 연구범위는 고대(古代)부터 근 현대라고 하는 전 세기에 이르고 있다. 그 저술의 숫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어 저술 600여점, 외국어에 의한 저술이 180여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카무라 박사에게서 학문의 중핵을 나타내고 있는 업적의 현저한 영역은 인도 철학과 불교학에 있으나, 비교사상이라는 일본에서는 극히 새로운 특히 불교학자 또는 인도 철학자들이 손을 댈 수 없었던 학문과 역사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에도 선구적 역할로 인한 공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인정받고 있다.

나카무라 박사의 연구의 출발점은 “인도철학 사상” 전 5권이다. 이 저술은 인도 최대의 철학자 샹카라(8세기전반) 및 그 이전의 종래 거의 해명치 못하고 있던 약1000년에 걸친 초기 베단타 철학사를 문헌학적 또는 사상사적으로 재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달성한 대저술이다. 이 논저는 나카무라 박사의 박사학위 청구 논문이기도 하다.

이 방대한 저작 중에서 나카무라 박사 자신이 선택해 일본 동경 춘추사에서 출판한 것이 『中村元選集 [결정판]』 전32권과 별권11권을 합해 43권에 수록되었다. 이들 32권으로 구성된 본론에 속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도사상과 문명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체계적인 서술을 목적하고 있다.

본론 중, 최초의 4권은 나카무라 박사를 일약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게 한 『동양인의 사유방법』이며, 제5권부터 제7권은 인도 고대사에 이어 제8권부터 32권까지 인도 최고(最古)의 베다 사상부터 시작해 현대인도 사상에 이르기까지 나카무라 박사의 전인격적으로 상술한 인도 사상사 개설을 형성하고 있다.

별권에 해당하는 “세계 사상사” 전4권은 인물 또는 학파별 이름에 의해 구성되어 논술한 종전 형식의 사상사 또는 철학사와는 그 형식을 달리해 전 지구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의 각종 문화적 전통에서 평행적인 발전 단계를 통해서 본 공통 문제 설정이라고 하는 테마를 비교사상이라고 하는 수법에 의해서 방대하게 논술한 지금까지 일본 학계에서 시도치 못했던 독창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계속해서 나카무라 하지메 전집 마지막이 되는 별권 전5권에서는 일본인의 사상을 불교문화 또는 고유 종교 사상에서 그 독자성을 다루고 있다.

나카무라 박사 저술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연구는 불교학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필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불교에 관한 서적이 거의 난해한 단어와 뜻풀이로 일관된 경향이 일반적이어서 ‘불교는 어려워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교에 대한 편견을 바꿀 정도로 대단히 알기 쉬운 현대어로 저술된 불교사전을 편찬 간행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서 『불교어 일본어역 사전』과 감수 저술인 『신(新)불교사전』을 시작해, 불구의 명저인 『광설(廣說)불교어 대사전』 전4권을 완성시켰다. 이 사전 간행 완료로 인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즉, 불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용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불교사전이 일본에서 최초로 출현하게 되었다. 이 사전은 대단히 권위 있는 마이니치(毎日)출판 문화상을 비롯해 불교전도 문화상 수상 등 많은 상을 독점했다. 이상의 결과는 이 사전에 대해 일본 사회 일반 및 전문가, 그리고 학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평가를 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나카무라 박사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학계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는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인의 최고의 영예로 인정되고 있는 일본국 문화훈장 등을 수상하고, 외국에서는 수많은 영예와 명예박사학위 수여 등 세계 각국 대학과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의 빈번한 초빙이라는 객관적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도 철학 및 불교학 지도자들이 지도한 학자들이 오늘날의 일본의 인도 철학 또는 불교학계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을 배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계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별도의 도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독단에 의한 계보도이며, 또 다른 사고방식에 의한 계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계보도는 일본 불교학계의 흐름을 알기 쉽게 도식화한 하나의 참고 논고에 불과하며 절대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오랜 일본 인도철학 및 불교학계에서 실체험적인 지식에 의하면 그렇게 어긋나는 계보도가 아님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그룹 즉, 문하생별로 분류하는 것은 일본 불교학계를 학문

적 전문 분야별 또는 인간 관계상으로 분류해 특히 외국 학계에서 일본 인도학 불교 학계를 개관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한 자료임을 명시한다. 실제로 명시된 교수들과 면담식의 조사에 의하면, 도식에서 표시한 그룹 형성 인물들은 내심으로는 이와 같은 그룹 형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부적 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작성한 것과 같이 명확한 분류가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특히 동경대학인 경우 그룹 형성을 할 정도로 명백한 경계선이 없다.⁷⁾ 그러나 전문 또는 인적 관계를 제3자적 입장에서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함으로 필자 나름대로의 객관적 입장에서 여기에 과감히 인물 그룹 형성도를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계보도에 의해 이하 그 문하생별로 이름과 대표적인 저술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나열해 보겠다.

Ⅲ. 학계열층에서 본 동향

· 우이 하쿠쥬(宇井伯寿)

①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문화

前田專學 · 三枝充惠 · 山口瑞鳳 · 奈良康明 · 川崎信定 · 田上太秀 · 上村勝彦 · 松本照敬 · 三友量順 · 阿部慈園 등인데, 이들의 주요 논문과 재직 연구기관을 연령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이구사 미즈요시(三枝充惠), 『초기불교 사상』, 동양철학 연구소, 1978. (인도불교 및 비교사상 전공. 쓰쿠바(筑波)대학⁸⁾.)
- 2) 야마구치 즈이호우(山口瑞鳳), 『토반(吐蕃)왕국성립사 연구』, 岩波書店, 1983. (티베트 역사 및 티베트 불교 전공. 토오쿄(東京)대학. 나고야(名古屋)대학.)
- 3) 나라 야스아키(奈良康明), 『인도사』, (인도불교 문화사 전공. 코마자와(駒澤)대학.)
- 4)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Sankara's Upadesasahasri", Tokyo The

7) 동경대학 문학부 인도철학과 명예교수 마에다 센가쿠 박사의 교시에 의함.

8) 마지막 부분의 대학 이름은 해당 인물이 근무한 대학을 의미한다. 또한 이 부분의 각 인물들의 생몰연대는 참고 자료 별지인 인물도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Hokusedo Press, 1973. (인도철학 전공. 토우요 대학. 무사시노(武蔵野) 대학.)

- 5) 타가미 타이슈(田上太秀), 『보리심 연구』, 東京書籍, 1990. (인도불교 전공. 코마자와(駒澤)대학.)
- 6) 가와사키 신조우(川崎信定), 『일체지(一切智)사상 연구』, 春秋社, 1992. (티베트 불교 전공. 쓰쿠바(筑波)대학, 토우요우(東洋)대학.)
- 7) 카미무라 가즈히코(上村勝彦), 『인도고전 연극론에서의 미적(美的)경험』, 東京大学出版, 1999. (인도문학 전공. 토오요 대학.)
- 8) 마쓰모토 쇼우케이(松本照敬), 『Ramanuja연구』, 春秋社, 1991.(인도불교학 전공. 타이토우 분카(大東文化)대학.)
- 9) 미토모 료우준(三友量順), (인도불교학 전공. 릿쇼오 대학.)
- 10) 아베 지온(阿部慈園), 『頭陀研究』, 春秋社, 2001. (인도불교학 전공. 메이지(明治)대학.)
- 11) 마루이 히로시(丸井浩), (인도철학 전공. 토오요 대학.)

② 타마키 코우시로우(玉城康四郎)문화

· 타마키 코우시로우(玉城康四郎)

(인도 불교학 · 비교사상학 · 중국 일본불교 및 선학연구. 토오요 대학.)

↓

1)기무라 키요타카(木村清孝)(중국 화엄사상 연구. 토오요 대학.)

③ 미야모토 쇼우존(宮本正尊)문화

平川彰→早島鏡正→高崎直道→江島恵教→齊藤明 · 下田正弘 등이며, 그들의 주요 논문과 재직 연구기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平川彰 저작집』 전17권, 春秋社, 1988-2000. (인도불교 전공, 토오요 대학. 와세다(早稻田) 대학.)
- 2) 하야시마 교우세이(早島鏡正), 『초기불교와 사회생활』, 岩波書店, 1964. (인도 불교 전공. 토오요 대학, 무사시노 여자대학.)
- 3) 타카사키 지키도우(高崎直道), 『여래장 사상형성』, 春秋社, 1974. (인도불교 전공. 토오요 대학, 와세다(早稻田)대학.)
- 4) 후치타 코우타즈(藤田宏達), 『원시불교 정토사상 연구』, 岩波書店, 1970. (원시불교 전공. 홋카이도(北海道)대학.)
- 5) 히라이 슌에이(平井俊榮), 『중국 반야사상사 연구』, 春秋社, 1976. (중국불교

전공. 코마자와 대학.)

- 6) 예지마 야스노리(江島恵教), 『중관(中觀)사상 전개』, 春秋社, 1979. (인도불교 전공. 토오쿄 대학.)
- 7) 사이토우 아키라(齊藤明), (인도불교 전공. 토오쿄 대학.)
- 8) 시모타 마사히로(下田正弘), 『장문화역(藏文和譯)대승열반경』, 山熹房佛書林, 1993. (인도불교 전공. 토오쿄 대학.)

④ 【팔리(Pali)어를 중심으로 한 불교연구 학자에 의한 동향】

나가이 마코토(長井真琴, 1881-1970, 토오쿄 대학) → 미즈노 코우겐(水野弘元, 1901-2006, 토오쿄 대학, 코마자와 대학) → 마에다 에가쿠(前田惠學, 1926-현재, 아이찌가쿠인(愛知學院)대학)로 연결되어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위의 팔리어 불교성전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주요 3인물 중, 각자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나가이 마코토 박사는 일본에서 최초로 “독습 팔리어 문법”을 출판해 일본 불교학계에서 당시까지 “소승불교”로 경시해 왔던 상좌불교를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음을 학문적으로 시사시킴으로 인해 그 후의 일본 불교학의 연구 진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할 수 있는 업적을 보이고 있어 오늘날의 일본 대학에서의 불교학의 동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나가이 박사의 뒤를 이어 팔리어를 중심한 불교학을 계승시킨 미즈노 코우겐 교수는 당시까지 발간되었던 대소의 팔리어 관계 문법 등에 관한 업적을 모아 “팔리어 문법”을 1955년에 일본 최초의 완벽한 팔리어 문법책을 간행하고 발간하여 지금 현재도 각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계속해서 1968년에는 일본어 “팔리어 사전”을 편찬 및 발행하여 명실공이 팔리어 습득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전 또한 일본 각 대학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팔리어 공부에는 필수적인 사전으로 애용되고 있다.

또한 미즈노 교수는 2006년 104세로 작고하기 전년도까지 학계에 논문발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젊은 후학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 자신의 연구 영역은 그의 주저인 『팔리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 심식론(心識論)』(東京, 피타카, 1978)이 대표하는 것과 같이 초지일관해 팔리 논쟁연구에 전념했음 또한 특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마에다 에가쿠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원시불교 성전 성립사 연구』(山熹房佛書林, 1965)가 대표하듯이 철저한 동경대학 연구 전통인 문헌학적 분석으로 1966년 그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일본 학계의 최고의 영예인 「일본 학사원 은사상」을 수여 받아, 동경대학이 낳은 수재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본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를 다음하는 위치로 그 위상을 확고부동하게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그는 83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으로 학구에 태만함이 없으며, 책상에서만 연구뿐만 아니라 교리학적 문헌학적 분석을 필드워크에 의한 연구로 불교학을 현대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주장과 실천은 일본불교 학계에 새로운 연구 풍토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디까지나 학문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 하지 않는 연구 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마에다 교수의 학술적 의미에 관해서는 뒤에서 거론될 VI. 【일본 인도학 불교학의 현재적 동향】에서 재론하므로 여기에서는 이 이상의 상술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⑤ 【중국 및 일본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학자의 동향】

유우키 레이몬(結城令聞, 토오쿄 대학) → 카마타 시게오(鎌田茂雄, 1927-2001: 중국 화엄사상사 연구·한국 불교, 토오쿄 대학) → 기무라 키요타카(木村清孝, 1940-현재: 중국 화엄사상, 토오쿄 대학)

이상 인물들 중에서 카마타 시게오 박사가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본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의 학술적 동향과 함께 상술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기로 하겠다.

일본불교 전공학자로서 다무라 요시로우(田村芳郎, 토오쿄 대학)박사는 일련종계통의 승려로서, 일본불교 전공자로서는 최초로 동경대학 인도철학과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박사학위 논문으로 『카마쿠라(鎌倉)신불교 사상연구』(平楽寺書店, 1965)가 있다. 그의 뒤를 이은 스에키 후미히코(末木 文美土, 토오쿄 대학)가 현재 활동 중이다.

⑥ 【산스크리트어 및 인도 문학자의 동향】

그밖에 상기의 인물들에서 불교 및 인도철학 전공이 아니므로 표시하지 않은 가운데서 관련 분야의 학자는 소위 인도학 계통 중 하나인 산스크리트어를 중심한 인도 문학 내지 언어학 전공 학자로 쓰지 나오시로(辻 直四郎, 1899-1979) 박사와 그 문하생들을 들 수 있다. 쓰지 나오시로는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언어학과를 졸업 후, 1924년부터 27년까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독일 말브르크 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와 베다 문학을 배운 뒤 1927년 동경제국대학에서 범어 문학 강좌 담당강사 및 교수가 되었으며, 소위 불교학 및 인도철학을 전공한 동경대학 출신 학자들의 대부분이 그로부터 언어학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것도 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특출한 언어학적 능력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주요 저술 『辻直四郎著作集』 전4권 (1981-1982, 法藏館)을 시작해 인도 고전 문학 논저 다수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문하생으로, 타나카 오토야(田中於菟弥, 1903-1989) → 와타나베 쇼우코(渡邊照宏, 1907 - 1977) → 하라 미노루(原実, 1930-현재)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당시의 동경대학 인도철학과에서 불교 및 인도철학을 연구한 학자들 거의가 쓰지 박사의 영향을 받고 그 학문적 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⑦ 【그 밖의 인물상에서 본 동향】

이상의 인물 도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토오쿄대학 출신의 학자들과 함께 도우호쿠(東北)대학, 교오토(京都)대학 등을 중심으로도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학 불교학자들도 함께 학계를 이끌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간적 제한으로 주요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그 일부만을 간략히 보기로 하겠다.

와쓰지 테쓰로우(和辻哲郎1888-1960)박사는 전공인 윤리학과 철학적인 입장에서 본 불교를 당대의 불교의 대가였던 우이하쿠쥬 또는 기무라 타이켄 박사와의 학술적 대론은 일본 불교학계에 많은 교훈과 불교학 연구를 재고하는 중요한 시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 논저가 “원시불교의 실천철학” (이와나미(岩波)출판사, 1927)으로 역사적 명저로서 현재도 원시불교 연구인뿐만 아니라 불교학을 목적하는 사람은 필독서로서 꼽히고 있다.

그는 출신대학은 토오쿄대학이지만, 최초로 교편을 잡은 곳이 교오토 대학인 이유와 토오쿄대학의 고전적 전통인 문헌학을 벗어난 사상적 또는 정신적 및 문화적으로 철학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소위 “교오토(京都)학과”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지금 현재도 결코 명확한 분기점은 없으나 암암리에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박사는 일본 불교중 선(禪)불교 또는 대승불교를 포함한 불교 전체를 개론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최초로 영문화해 홍보시켜 불교를 세계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 및 철학적으로 격조 높게 대중화시킨 그의 업적 등은 “근대 일본의 최대 불교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앞에서 본 와쓰지 테쓰로우 박사와 마찬가지로 토오쿄대학 출신이나 일본을 대표하는 근현대의 최대의 철학자이며 사상가로 평가되고 소위 “교오토학과” 창시자로 불리는 니시다 기타로우(西田幾多郎, 1870-1945)박사와 같은 고향 친구로, 교오토의 각 대학에서 첫 교편을 잡았으며, 불교를 교리학 또는 문헌학이

아닌 사상적, 철학적 및 문화사적 측면으로 분석해 고도의 수준에 의한 대중화적 학문적 스타일이 연유가 되어, 소위 “칸토우(關東)학과”가 아닌 “쿄오토(京都)학과”로도 불리고 있다.

이상과 함께 특필할 수 있는 주요 저명 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카나쿠라 엔쇼우(金倉圓照, 1896-1987, 인도 정신사 및 인도철학 불교학: 東北대학), 오기와라 운라이(荻原雲来, 1869-1937, 산스크리트어 및 인도 불교학: 大正대학), 마스타니 분유우(増谷文雄, 1902-1987, 종교학, 불교학: 동경 외국어 대학, 大正대학), 카즈마타 순교우(勝又俊教, 1909-1994, 불교 심식설연구: 大正대학), 카나오카 슈우유(金岡秀友, 1927-2009, 대승불교: 東洋대학), 니시 키유우(西義雄, 원시불교의 반야사상: 東洋대학), 오노 겐묘우(小野玄妙, 1883-1939, 불교학, 불교예술. 불서(佛書)해설 대사전, 대승불교 예술사 연구. 고오야산 대학), 야마구치 스스무(山口益, 1895-1976, 불교의 무(無)와 유(有)의 대론: 오오타니 대학), 히사마쓰 신이치(久松眞一, 1889-1980, 교오토 대학의 니시다 기타로의 철학과 스즈키 타이세츠의 선 불교학에 영향을 받아 동양철학, 불교사상, 일본사상을 연구했다. 교오토 대학), 야나기타 세이잔(柳田聖山, 1922-2006, 중국 선종사: 하나조노 대학, 교오토 대학), 사쿠라베 하지메(桜部建, 1925-현재, 아비달마불교: 오오타니 대학), 후나하시 잇사이(舟橋一哉: 구사론 연구: 오오타니 대학), 시즈타니 마사오(静谷正雄, 1916-1980, 부파불교 성립사: 류우코쿠 대학), 이와모토 유타카(岩本裕, 1910-1988, 인도학 불교학: 교오토 다치바나 여자대학), 쿠모이 쇼우젠(雲井昭善, 1915-현재, 초기불교: 오오타니 대학), 사사키 겐준(佐々木現順, 1915-현재, 불교 심리학: 오오타니 대학) 핫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1924-현재, 인도고전학: 교오토 대학), 카지야마 유우이치(梶山雄一, 1925-2004, 중관과 유식: 교오토 대학), 아카누마 켄젠(赤沼智善, 1884-1937, 인도불교학: 오타니 대학), 나카노 기쇼우(中野義照, 1891-1977, 인도학: 고야산 대학), 우에다 요시부미(上田義文, 1904-1993, 불교 사상사: 류코쿠 대학, 나고야 대학), 우에다 시즈테루(上田閑照, 1926-현재, 종교철학, 「동서 신비주의 연구」교오토 학과 사상연구가의 한 사람: 교오토 대학), 사토우 미즈유우(佐藤密雄, 1901-2000, 원시불교 교단 연구: 大正대학)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은 오늘날 현재까지의 일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물상에서 본 인도학 불교학의 동향이지만 여기에 거론된 학자들은 일본 인도학 불교학계를 이끌어 온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대표 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IV. 일본 불교계 주요 사립(종립)대학에서 본 동향

이상과 같은 인물들이 일본의 각 국공립대학 및 불교계 종립대학을 중심으로 인도학 불교학을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연구 활동 및 활약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학에 관해서는 상기I.【서론】에서 개략적으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교계의 주요 종립 대학들만을 간추려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특히 그 역사적 및 현재적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駒澤大學(Komazawa University)

코마자와 대학은 일본불교 선종계 조동종이 창립한 종립대학으로 16세기 동경 고마고메(駒込) 길상사(吉祥寺)에 설립한 선단림(施檀林)이 그 기원이라고 한다. 1875년 青松寺 獅子窟 学寮舍内に 설립한 조동종 전문학본교(曹洞宗専門学本校)와 선단림을 1876년에 병합하여, 1883년 동경 시내 아자부(麻布)로 옮겨 조동종대학림(曹洞宗大学林) 전문학교라고 칭했다. 1904년에 전문학교로, 1925년 일본 정부의 대학령(大学令)에 의해 고마자와(駒澤)대학으로 승격 개칭한 후 불교학부, 문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경영학부, 의료건강학부, 북해도(北海道)지방에 교양학부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 학부에 따른 대학원에 전공 분야별로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부속기관으로 선(禪)연구소, 불교경제연구소, 불교문화연구소, 응용지리 연구소, 법학연구소,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경리연구소, 커뮤니티 케어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다.

특히 고마자와 대학은 다른 불교계 대학들이 자신들의 종파의 종지를 중심으로 한 불교학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자신들의 종파의 종지뿐만 아니라 불교학 전반에 걸친 연구 즉,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티베트불교 등을 폭넓게 연구하는 학풍이 있어, 당연히 이들 불교에 대한 연구팀 다시 말해서 전공학자들의 지도는 타 불교계 대학에 비해 탁월하다는 일본 불교학계의 평가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본부는 東京都(토오쿄토) 世田谷区 駒澤에 있음.)

② 大正大學(Taisho University)

일본 불교계 천태종, 진언종, 정토종의 3개의 종파가 공동으로 설립한 종립대학이다. 구체적으로는 천태종(天台宗)대학, 풍산(豊山) (진언종, 真言宗), 종교(宗教)대학 (정토종, 浄土宗)을 병합하여 설립한 불교 연합대학을 전신으로, 1926년

대학령에 의해 대학으로 승격해 타이쇼우(大正)대학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진언종 지산파(智山派)가 설립한 지산 전문대학도 大正대학으로 병합시켜, 3종단과 1개의 그룹으로 인한 경영체제를 유지하다 1949년 일본정부에 의한 신 대학제도에 의해, 최초로 문학부와 불교학부만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1992년에 각 학부와 학과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1996년에는 불교학부를 폐지한 후, 문학부와 인간학부 2학부만이 있는 대학이다. 입학정원은 800명(1997년 현재). 1951년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소재지는 東京都(토오쿄토) 豊島区 西巢鴨에 대학본부가 있음.

③ 立正大學(Rittsho University)

1904년 설립한 일본 불교 일련종대학림(日蓮宗大学林)이 전신이 되어, 1907년 일련종대학으로 개칭한 후, 1924년 일본 문부성의 [대학령]을 기점으로 릿쇼오(立正) 대학으로 재 개칭하게 되었다. 초창기부터 설립했던 불교학부, 문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법학부에 1995년에 사회복지학부, 1997년에 지구환경 과학부를 증설해, 현재 총 7개 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입학정원은 2,640명 (1997년 현재). 이와는 달리 1950년에 단기 2년제 대학과 1951년에 대학원을 설치하고 있다.

소재지는 東京都(토오쿄토) 品川区 大崎.

④ 武蔵野大學(Musashino University)

일본불교 정토진종(浄土真宗)계통의 종립대학으로 1924년 동경 시내에 있는 築地本願寺 경내에 위에서 본 인물 중의 한 사람인 타카쿠수 준지로(高楠順次郎)씨에 의해서 창설된 무사시노(武蔵野)여자 학원이 그 기원으로, 1927년 여자고등학교를 인가받았으며, 그 뒤에 자매 학교인 동경시내에 있는 치요다 여자 전문학교를 병합시켜, 1950년 무사시노 여자 단기대학을 기초로 1965년에 4년제 대학인 무사시노 여자대학을 발족해 문학부 특히 영어 영문학과에 중점을 두었다. 그 뒤 1998년부터 현대 사회학부, 1999년 인간관계학부를 증설했으며, 2003년부터 무사시노 대학으로 개칭했다. 계속해 2004년에는 약학부를 증설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여자대학을 폐지하고 남녀공학 대학으로 그 체제를 변환시켰으며, 2006년에는 간호학부도 신설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입학정원은 650명이다(1997년 현재). 1999년부터 대학원도 설치했으며, 불교문화연구소, 약학연구소도 함께 설립했다.

대학 본부 소재지: 東京都(토오쿄토) 西東京市에 있음.

④ 愛知學院大學(Aichi Gakuin University)

일본불교 조동종(曹洞宗)이 1876년에 창설한 조동종 전문 분교를 전신으로, 1950년에 아이찌 가쿠인(愛知学院) 단기대학을 설립해, 1953년 상과대학을 만들과 동시에 4년제 대학이 되었다. 현재 상학부, 경영학부, 법학부, 치과학부, 문학부, 정보사회정책학부등 6개의 학부(대학)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정원은 2440명이다(1997년 현재). 1964년에는 대학원을 설치해, 법학, 상학, 치과학, 문학, 경영학의 각 연구과가 있으며, 선학, 종교법제학, 경영학, 상품학, 어학, 인간문화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다.

대학 소재지는 일본 중부지방인 愛知県((아이치켄) 日進市 岩崎町에 있다.

⑤ 龍谷大學(Ryukoku University)

일본불교 정토진종(浄土真宗)계통의 종립대학으로 1639년에 창건된 일본 경도에 있는 西本願寺의 강원을 기원으로 하며, 1888년 大学林, 1900년 불교대학으로 개칭했으며, 1922년 일본 문부성의 대학령에 의해 연구과, 문학부, 예과, 전문부를 설립해 류우코쿠(龍谷)대학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문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법학부, 이공학부, 사회학부, 국제문화학부 등 7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정원은 4170명 (1997년 현재)이며, 1950년에 2년제 단기대학과 1953년에는 대학원을 설립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京都市(교오토시) 伏見區에 있음.

⑥ 大谷大學(Otani University)

위의 류우코쿠(龍谷)대학과 마찬가지로 정토진종(浄土真宗) 오오타니(大谷)파가 1665년 경도 東本願寺의 강원을 기원으로 설립한 단과대학이다. 1882년부터 진종(真宗)대학 강원, 1896년 진종대학으로 개칭한 후, 1922년 대학령과 함께 일반대학으로 승격해, 대학예과를 병설했다. 1924년 전문부 설치와 1949년부터 문학부 하나만으로 통합해 진종학과, 불교학과 등 7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정원은 780명 (1997년 현재)이며, 1953년 대학원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이 대학은 타 불교계 대학이 종합대학을 목표로 확충하는 가운데 초지일관으로 불교 전문 대학에 힘을 기울리며, 자신들의 정토진종학을 중심으로 초기 불교 특히 팔리어 원전 연구 실적에는 정평이 있어 많은 불교학자들을 배출시켰다.

대학 소재지는 京都市(교오토시) 北区 小山上總町에 있음.

⑦ 佛教大學(Buttkyo University)

정토종(淨土宗)이 1868년 경도 知恩院 산내에 창설해 그 이름을 간가쿠인(勧學院)이 전신으로 정토종 학교, 종교대학이라는 명칭을 경유해 1813년 불교 전문대학이후, 1949년부터 현 체제의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에는 불교학부만을 설치한 단과대학으로 발족했으나, 현재는 문학부, 교육학부, 사회학부를 설치하고 있다. 입학정원은 160명(1997년 현재). 1967년 대학원을 설치하고 있다. 대학 소재지가 교오토에 있어 “교오토 붓교오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학 본부 소재지는 京都市(교오토시) 北区 紫野北花ノ坊町에 있음.

⑧ 種智院大學(Suchiin University)

1881년 진언종(眞言宗) 京都高等中学林을 걸쳐 진언종 교오토대학, 1905년에 교오토 전문대학, 1949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서 현재의 슈우치인(種智院) 대학으로 개칭했다. 이 대학 명칭은 828년 진언종을 개종한 코우보우(弘法) 대사가 창설한 종예종지원(綜芸種智院)에서 유래한다. 불교 특히 밀교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진언종 사원의 자제들이 많다. 학부는 불교학부에 불교학과와 불교복지학과를 두고 있다. 입학정원은 160명(1999년 현재).

학교 소재지는 京都市(교오토시) 伏見区 向島에 있다.

⑨ 高野山大學(Kouyasan University)

1886년에 진언종 고의대학림(古義大学林)을 전신으로 해 1909년 전문대학, 1926년 코오야산(高野山)대학으로 개칭해 위의 슈치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진언 밀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학부 한 학과로 구성되어있는 단과대학이다. 입학정원은 280명(1997년 현재), 1952년에는 대학원을 설치해 일본 유일의 진언밀교를 밀도 높게 연구하는 대학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소재지는 和歌山県(와카야마켄) 伊都郡 高野町에 있음.

⑩ 身延山大學(Minobusan University)

1556년 니치렌슈우(日蓮宗) 선학원(善学院)을 그 기점으로 하며, 1949년 개설한 미노부산(身延山) 단기대학을 걸쳐, 1994년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해, 불교학부 하나를 설치해 특히 종지인 니치렌슈우 종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다. 이 대학은 앞에서 본 ③릿쇼우대학과 함께 니치렌슈우 종립 대학으로 특히 법화경(法華經)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학정원은 40명(1997년 현재).

소재지는 山梨県(야마나시켄) 身延町에 있음.

⑪ 花園大學(Hanazono University)

하나조노 대학은 1872년 교오토에 있는 임제종 본사 묘심사(妙心寺)에 반야림(般若林)이라는 학문 연구소를 설치한 것이 창설 기반이라 한다. 창설 이래 1911년에 그 이름을 임제종 대학으로 개칭하고 1934년에는 임제학원 전문대학교로 재 개칭해, 처음에는 불교학부 한 학부였으나 1966년 그 명칭을 문학부를 다시 개칭한 후, 사회복지학부를 증설해 2개 학부에 8학과가 있으며, 선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문과계 대학으로 발전해 온 대학으로 임제종 종립대학이다. 1994년에는 대학원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부속으로 국제선학연구소를 설립해 본격적인 선학 연구 발상지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소재지가 교오토에 있어 “교오토 하나조노 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징으로서는 선학을 중심한 교육이념으로 인간 교육을 하고 있으며, 경영 모체인 임제종 묘심사를 중심한 종단대표가 이사장을 겸무하고, 대학 총장은 각 선방의 방장스님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음이 타 대학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입학 정원은 650명(1997년 현재).

소재지는京都市(교오토시) 中京区 西ノ京壺ノ内町에 있음.

⑫ 四天王寺大學(Shitennouji University)

시텐노우지 대학은 쇼우토쿠 태자(聖德太子:574-622)가 불교 정신에 입각해 일본 최초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17조 헌법 제1조에 있는 “화합을 최상으로 한다”라는 정신에 입각해 창종된 “화(和)중(와슈우)가 1922년 창립한 시텐노우지(四天王寺)학원을 모체로 해 1957년 시텐노우지 여자 단기대학, 1967년 4년제 여자대학으로 승격시켜, 1981년 현재 대학 이름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되었다. 문학부에 불교학과, 교육학과, 언어문화학과, 사회학과, 인간복지학과를 설립했으나, 2000년에 불교학부를 인간사회학부로 그 명칭을 개칭하고, 2003년에는 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설립. 2008년에는 영어문화학과, 교육학부, 경영학부, 시텐노우지 단기대학부를 설립해 단과대학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특징으로서는 인간의 심성의 화합을 교육 지침으로 삼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을 중요히 여기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인재 육성을 최상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정원은 625명(1997년 현재)이었으나 현재는 더욱 증원했다고 본다.

소재지는 大阪府(오오사카후) 羽曳野市 学園前に 있음.

⑬ 國際佛教學大學院大學(Kokusai Butkyogaku Daigakuin University)

코쿠사이 붓쿄오 대학원 대학은 일본 불교계 신흥 종교 레이유카이(靈友會)가 1996년 국제 불교학 연구소를 그 기점으로 설립 개교해 운영하고 있는 단과 대학원 대학으로 일본 불교계 대학 중의 최초의 대학원 대학이다. 정원은 20명으로 5년제 박사과정만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 제일 작은 대학이다.

2005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 사립대학 학술연구 고도화 추진사업 푸론티아「奈良 平安 古寫經研究 據点形成」로 지정 되어 일본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고사경 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소재지는 東京都(토오쿄토) 港區 虎ノ門 五丁目に 있음.

⑭ 創価大學(Souka University)

1971년 쇼우카각가이(創價學會)가 모체가 되어 경제학부, 법학부, 문학부, 경영학부, 교육학부, 공학부등 6개 학부를 설치해 창설했으며, 국제교류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이며, 외국 유학생을 위한 일본어 연구과정도 설치하고 있다. 입학정원은 1620명(1997년 현재) 1975년에는 대학원도 창설했다.

대학본부 소재지는 東京都(토오쿄토) 八王子市 丹木町에 있음.⁹⁾

이상으로 불교계가 설립한 소위 각 종립대학에서 약 100년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배출된 불교학자들은 오늘날 일본 불교학계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학문불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특히 동경대학 및 경도대학 또는 동북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에서 배출된 인도철학자 또는 불교학자들은 일본 불교학계를 끊임없이 주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수가 일본 불교 승려 출신이 많은 것도 한 특징이라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일본 불교의 특수성, 즉 한국과 같이 출가수행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는 재가 교학 불교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으로서의 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가 다원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불교와 불교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는 주요 종단별, 특히 대학 교육기관을 종합적으로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9) 이상 각 대학에 관한 자료는 브리태니커 국제 대백과사전 2007년도 판 각 해당 항목과 각 대학의 홍보지 등을 참조해 필자가 가필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 曹洞宗(참선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선종)종립대학
- 「駒澤大學」, 「駒澤女子大學」, 「鶴見大學」, 「愛知学院大學」, 「東北福祉大學」, 「北海道駒澤短期大學」.
- 浄土真宗(염불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정토종계) 종립대학
西本願寺派 · 「龍谷大學」 「武蔵野大學」
東本願寺派 · 「大谷大學」
- 天台宗(일본불교 최초의 종파로서 국가불교의 상징적으로 시작한 종파)
· 「大正大學」
- 真言宗(상기의 天台宗과 대립적으로 세워진 고대(古代)일본불교 종파)
· 「大正大學」 「高野山大學」 「種智院大學」
- 浄土宗 · 「佛教大學」 「大正大學」
- 日蓮宗 · 「立正大學」 「身延山大學」
- 臨濟宗 · 「花園大學」
- 和宗 · 「四天王寺大學」 「四天王寺 단기대학」
- 創価学会(日蓮正宗의 재가불교 단체) · 「創価大學」
- 靈友会(법화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고 그 보살행 실천을 보급하기위한 재가불교 단체) · 「國際佛教大學院大學」

이상은 위에서 거론한 각 주요 불교계 종립대학과 관계되는 종파이지만, 이들 각 종파와 그 설립 대학과의 관계는 한국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 상세한 소개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각 국공립대학 및 불교계 종립대학을 중심으로 일본 인도학 불교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연구 성과 발표에 필요 불가결한 연구 학술단체를 극히 간략히 주요 단체만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면서, 그 동향을 보기로 하겠다.

V. 일본 학계 주요 연구 학술학회에서 본 동향

* 「일본 종교학회」

1930년 창립, 2009년 현재 회원 2,500명.

입회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추천인: 1명(종교학회 회원)

연구발표 자격: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회원에 한함.

연회비: 8,000엔

논문집『종교연구』1년에 3권 발행. 2009년 현재 통권 361호 발행.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

1951년 창립, 2009년 현재 회원 2,500명.

입회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추천인: 2명(본 학회 평의원 또는 이사)

연구발표 자격: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회원에 한함.

연회비: 6,500엔

논문집『일본 인도학 불교학 연구』1년에 3권(영문 요약본 포함) 발행.

2009년 현재 통권 118호 발행.

특히 이 학술 단체는 상기한 「일본 종교학회」와 인접학회로서 그 회원 또한 양측에 가입 하고 있는 실정이다.

*「팔리학 불교문화 학회」

1988년 창립, 2009년 현재 회원 300명.

입회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추천인: 2명(본 학회 이사)

연구발표 자격: 석사과정 수료자 이상으로 회원에 한함.

연회비: 3,500엔

논문집『팔리학 불교 문화학』1년에 1권 발행. 2009년 현재 통권 22권 발행.

이밖에 「남아시아학회」, 「불교사상학회」, 「일본불교학회」, 「비교사상학회」, 「일본 불교교육학회」, 「일본불교 종합연구학회」, 「일본불교 사회복지학회」, 「불교간호 비하라학회」등 많은 수의 인도학 및 불교학 관계 연구 학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또한 평균적으로 1년의 한권씩 연구 논문집을 출판하고 있으며, 이들 해당 학술지에 논문 게재에는 엄정한 논문 심사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위에서 소개한 학술단체 중에서도 특히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는 매년 일본 각지 대학을 순회하면서 학술 논문 발표를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 발표 내용은 본 학술지에 게재되지만, 발표자 한 사람당 평균 5페이지에서 6페이지밖에 게재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대단히 짧은 논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각

대학 또는 학술기관에서는 그 업적에 대한 평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특히 젊은 연구인들이 앞을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년 2일간의 발표 기간 중, 250명이 한도이지만, 300명 이상이 발표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매년 약 50명 전후가 탈락(신청 마감 선착순)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개선 과제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VI. 일본 인도학 불교학의 현재적 동향

여기에서 극히 간략히 일본에서의 「인도학」 또는 「인도철학」 및 「불교학」의 관계와 일본 인도학 불교학계에서 과제화하고 있는 현재적 동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인도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도 사상 전통 중에 「철학적 체계」로 취급할 수 있는 여섯 개의 다르샤나(세계관으로서의 철학 사상 체계의 전통)를 중심으로 한 인도 고유의 철학적 사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인도철학 불교학」과 함께 지칭되어 사용하는 일이 많으며, 19세기 후반 이래 구미 인도학의 새로운 방법론에 자극을 받으며 실질적으로는 불교학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재도 일본의 여러 대학 중에서는 인도철학 연구실 또는 인도철학 불교학 연구실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되어 교육 커리큘럼 조직이 상식화되어 있어, 그 가운데에서 전통적인 인도철학 연구와 인도 불교학을 핵심으로 중국불교, 한국불교 그리고 일본불교를 포함한 불교 연구가 일체화 되어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적 학풍 속에서 현재적 움직임을 보면, 과학적 문헌학적의 발전을 볼 수 있으며, 적지 않은 사본(寫本)연구에 거슬러 올라, 정확한 원전 해석을 하는 경향이 예전보다도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연구인들이 좁은 연구 영역 중에 파문혀 시야가 좁아지기 쉬운 형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인도철학 또는 불교사상 일반적 시점에서 실천적으로 지금 현재의 문제를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서 일반사회에 적극적으로 제언하고 있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을 볼 수 있다. 그 곳에서도 근본을 철학적으로 파헤치고 또한 생동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실천에 입각하면서, 최선단의 인도철학 또는 불교학의 성과와 밀접한 교류를 수립함에는 도달치 못하고 있는 듯하다. 원전(原典)사상에 되돌아가 불전(佛典) 또는 인도철학 문헌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읽는 연

구 작업 현장과 현 일본 사회를 어떻게 생존시킬 것인가라는 절실한 철학적 문제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도랑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현안 문제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본 인도학 및 불교학의 전통 성에서 급변하는 새로운 조류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종래와 같은 문헌학적 역사학적인 연구가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헌학 교리학적 연구에 급급했던 전통에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가미한 인도학 및 불교학연구가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 점 또한 새로운 동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동향의 중심적 연구로써, 초기불교(일본에서는 “원시불교” 또는 “근본불교”) 연구 학자로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높은 마에다 에가쿠(前田 惠學)박사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마에다 박사는 『원시불교 성전의 성립사 연구』¹⁰⁾로 동경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고,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일본 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학사원 은사상>을 일본 천황으로부터 직접 수여받는 등 그 명성은 필자가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명한 학자이다. 동시에 마에다 박사의 논문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초기불교 성전 즉, 팔리어 성전을 역사적 및 문헌학적으로 치밀하게 연구한 대저로 출간된 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원시불교 즉, 초기불교를 연구하는 자에게 이 책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그 연구를 확립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불교 연구자의 필독 좌우의 명저로써 그 평가가 높다.

다시 말해서 이같이 일본 전통의 문헌학 및 역사학적 연구의 전형적인 학자 마에다 에가쿠 박사가 「문헌학적인 연구뿐 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인류학적, 민속학적, 종교학적 등의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학을 가미한 연구가 되지 않으면 동남아 불교 및 중국 한국 또는 일본 불교의 현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불교는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마에다 박사는 1977년 뜻을 같이하는 팔리 불교 학자들과 함께 <팔리 문화 연구회>를 발족해 매년 꾸준한 연구 활동과 학회 논문집을 발표하는 등 부단 없는 전진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7년에는 정식으로 <팔리학 불교 문화학회>를 창립하고, 마에다 박사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돼 오늘날까지 눈부신 활동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의와 찬탄을 금하지 않고 있다.

이 <팔리학 불교 문화학회>는 일본에서 인도학 및 불교학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전문성을 띤 주요한 연구 단체로, 팔리 불교권의 문화를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연구해, 그 성과를 발표해 왔다. 그리고 현대의 동남아 불교뿐만 아니라 동

10) 동경, 山喜房佛書林, 1964년. p.1000.

북아시아까지 그 연구 범위를 넓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에다 박사는 불교를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의 3대 신문사 등으로부터의 연구 보조금을 받아 동남아 불교국가를 현지 답사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성과중의 대표적인 저술 하나를 소개하면 1987년에 발표된 『현대 스리랑카 상좌불교』¹¹⁾를 들 수 있다.

이 『현대 스리랑카 상좌불교』는 B5사이즈의 크기로 1000쪽을 넘는 방대한 서적으로, 불교학을 「현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리랑카 불교를 모델로 학제적(學際的)이며 또한 종합적으로 스리랑카 각지를 현지 조사하는 연구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에 의한 업적이다. 해당 연구 성과가 발표됐을 때 아사히 신문사로부터 아사히 학술 장려상, 주우니찌(中日)신문사에서 주우니찌 문화상 수상, 일본 정부로부터 문화 공로상 등 모든 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전까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동남아 현대 불교에 대해 미흡했던 분야의 연구 성과와 그 중요성을 제시한 역사적인 대작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에 있어서 이 『현대 스리랑카 상좌불교』라는 서적을 거치지 않고서는 「현대 불교연구」를 진척 시킬 수도 없으며 또한 「불교학」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¹²⁾라는 대단히 높은 평가 역시 이 저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마에다 박사는 일본에 있어서 동남아 불교 연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불교학 전체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 연구 방법을 동남아 불교 연구를 통해 일본 학계에 모델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일본 불교학계는 지금까지의 불교 연구 방법과는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현대 동남아 불교의 현황을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조사해 그 중요성과 불교학 연구의 현대적 의미의 중요성을 논술한 가장 기본이며 금후의 불교 연구의 이정표가 될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생각해 지금까지 그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논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부터 9년 전인 2000년 일본 히로시마 국립대학에서 개최된 <일본 불교학회>에서 마에다 박사의 연구 발표에 의한 제안은, 약 130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발전해 온 일본의 불교학 연구인들의 후예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을 지금도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¹³⁾

변화해가고 있는 일본 불교학의 동향의 또 하나는, 예전 일본의 연구인들은 서

11) 동경, 山喜房佛書林. p.1000.

12) 前田恵學, 『팔리학 불교 문화학』 제19호, p.1-8.(팔리학 불교문화학회, 2005년 12월); 일본 신문, 『주우가이 닛포(中外日報)』 1987년. 제10면기사.

13) 석오진, 「일본의 동남아 불교 연구현황」(『불교평론』 제34호.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8년. pp.284-286)이 있음.

양학자들이 출판한 것을 연구함에 불과 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미개발 고전 사본을 탐색 연구해 출판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SAT(대정신수대장경 디지털화)가 오랜 세월을 걸쳐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어 대단히 편리하고 또한 정확하게 분석 연구 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종전의 문헌학 및 역사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던 일본 불교학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동향이라 할 수 있다.

VII. 금후의 한일 불교학의 문제점 제기

마지막으로 금후의 과제로서 중국불교 및 한국불교 연구를 중심으로 일본 불교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한국과 한국인을 중히 여기며 생애를 보낸 카마타 시게오¹⁴⁾ 박사가 지적하고 또한 숙제로 남긴 부분을 소개하면서 미숙한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다.

「중국불교사를 먼저 말하면, 현대 중국불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明代의 불교이며, 명대의 불교를 파악하지 않으면 현대와의 관련이 거의 불확실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¹⁵⁾

또한 현대 중국불교에서는 한(漢)민족 불교와 티베트 불전 전래 불교, 2종류의 불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치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중국 오대산(五臺山)의 사원들은 청묘(靑廟)와 황묘(黃廟)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

14) 鎌田茂雄(1927-2001)는 카나가와켄 카마쿠라에서 태어나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으나 마침 전쟁이 끝나 군 복무 초창기에 군복을 벗고 스즈키 타이세츠가 활약했던 카마쿠라에 있는 엔카쿠지(圓覺寺)에서 참선 수행 후, 불교 선종 종립 명문대학인 코마자와 대학 불교 학부를 마친 후, 동경대학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진학. 석박사과정을 마침과 동시에 중국 화엄학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문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학위 수여자였다. 이같은 학적 공적이 인정되어 전쟁 후 최초로 사립대학인 코마자와 대학 출신을 동경대학 교수로 임명했다. 그 후 그는 “중국 화엄사상사 연구”를 시작해 실로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일본 불교 학자들 중에서도 한국불교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생애에 걸쳐 주장했으며, 한국 불교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업적을 남긴 유일한 학자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또한 합기도 5단으로 아침 5시에 기상해 합기도 도장에서 운동을 한 후 대학 연구실에 도착하면, 아침 7시30분이 되는 일과는 동경대학 재직 중에 변함없는 일정이었으므로 글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불교학을 전공한 이후 생애를 걸쳐 한국의 많은 학자들과 친교를 맺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기 할 수 있는 학자는 김지전(1931-2001)박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5) 관련된 자료로서 張聖嚴, 『明末의中國佛敎의研究』(동경, 山喜房仏書林, 1975년)가 있음.

다. 청묘는 한민족 불교의 사원임에 대해, 황묘는 티베트 불교 사원이다. 의례 의식과 교리가 전혀 다른 불교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 오대산 불교이다.

또 감숙성(甘肅省)의 라불란사 등은 티베트 불교의 거대한 사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티베트 불교 사원은 청해성(青海省), 내(內)몽고 자치구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사원들도 또한 현대 중국불교 가운데에 포함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대 중국불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연히 티베트 불교의 지식이 필요 불가결하게 된다.

다음으로 불교 교리사 면에서는, 천태(天台), 화엄(華嚴), 삼론(三論), 법상(法相) 등의 교리학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종래는 각 교학이 각각 연구되어 왔는데, 중국불교 사상사로서 일관한 사상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하나의 숙제이다.

천태와 화엄은 같은 일승(一乘)불교로, 교학을 거론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중국 불교로 포괄시키면서 교리 전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 무엇이 근본적인 사상인가, 개념에 의한 사상의 변천을 해명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또 중국불교 사상의 변천을 폭 넓게 중국불교 사상사의 시점 가운데에 두고, 중국불교 그 자체를 중국 사상사 속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길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불교 사상 가운데에서는 중국 고전에서 용어를 많이 채용하고 있으므로, 그 사상의 영향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불교 연구에서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교단사 면에서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조(李朝)불교와 함께 고려불교를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려불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송(宋)과 원(元)불교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티베트 불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종래, 고려불교의 성격에 관해서는 확실치 않은 면이 많으며, 예컨대 팔관재회(八關齋會)와 상원연등회(上元燃燈會)등에 관해서도 실제로 어떤 의례 의식이 행해졌는지에 대해 분명치 못한 부분이 많다. 이 문제들도 중국불교의 의례의식과 비교연구가 금후의 과제라 볼 수 있다.

교리사 면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주석서(注釋書)와 찬술서(撰術書)를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려의 균여(均如)의 『釋華嚴五教章圓通鈔』 등의 주석적 연구를 하고 아울러 그 사상의 특질을 중국 화엄과 비교 검토하면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또 한글로 기록된 李朝의 김시습(金時習)의 『華嚴一乘法界圖註』 등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로 한국의 불교학자들의 독자적인

교리 해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의 한국의 불교 학자들의 저술이 계속 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학자들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한글 문헌을 해독해 그 성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섭취함이 없이 한국 불교사 연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또 중국불교와 한국불교를 연구한 안목으로 일본불교를 재고(再考)함을 서슴지 말아야 할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¹⁶⁾

이상과 같이 한국불교 연구에 호의적 또는 발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논조는 일본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 전문 학자들 약3000명이 넘는 가운데서 불과 몇몇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함에도 일본 불교학계가 한국불교학계에 대한 관심도와 그 동향을 숙지함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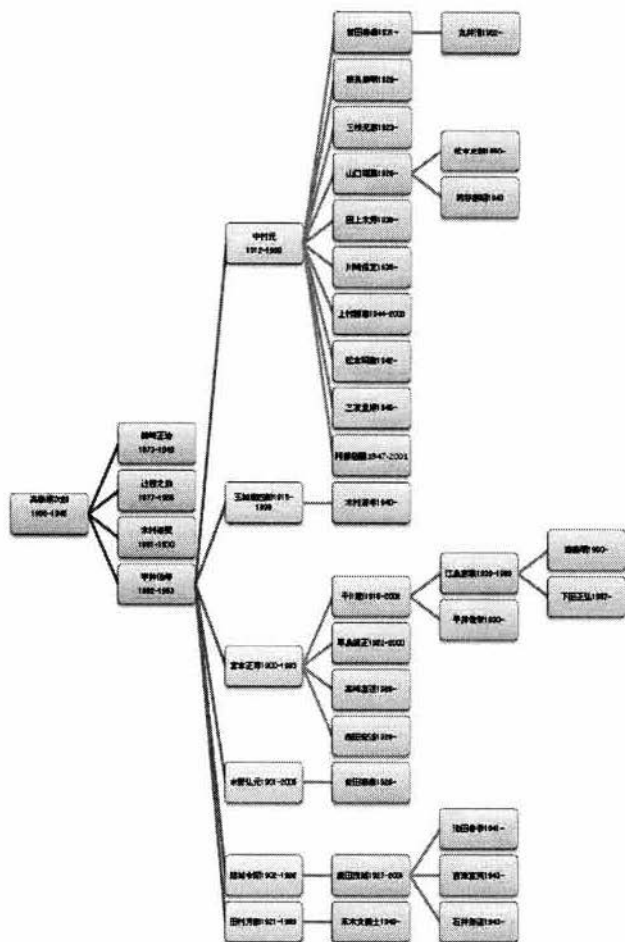
끝까지 경청해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주제어: 인도학, 일본 불교학, 인도철학, 칸토오 학파, 교오도 학파, 문헌학

16) 『鎌田茂雄博士還暦記念論集 中國불교와 문화』大藏出版, 1988년 pp.70-72.

· 자료 1 【日本 인도학 불교학자 인물상에서 본 동향】(인물도)



日本の大學におけるインド學佛敎學の動向

Trends in Buddhist and Indologic Studies at universities in Japan

インド學佛敎學の多元的共存の思想を求めて-

釋 悟 震

要旨

日本の大學におけるインド學や佛敎學研究は、今日の日本の人文学研究に大きな一石を投じているのは周知の如くである。

つまり、日本のインド學佛敎學は、その学際的な影響が同研究の歴史と共に、高いレヴェルを有する専門研究者により、文献學、書誌學、思想學、敎理學、論理學、歴史學、哲學的等、多岐にわたる研究領域を有するまでに至っている。

しかも、このような現状は、今や従來のインド學佛敎學の発祥の地といわれる欧米の諸學界が成し遂げられなかった研究の發展であるとも評されている。ここまでに至るまでには、日本の近代敎育が国家的な政策によって始められた明治年間から数え、約150年近くの時を経ている。

そこで、このような歴史を有する日本のインド學佛敎學が如何に共存共榮してきたのか。あるいは如何にその伝統を維持してきたのかを当該研究者たる人物の脈絡を中心に、その流れを確認すると同時に、全く門外の者に対しても日本のインド學および佛敎學の流れを可視的に明らかにするために、当該の學問史上おそらく初めてとも考えられる「日本インド學佛敎學者の人物図」なるものを作成し果敢に披露すると同時に、この人物図を中心に解説的論考を試みた。

今一つは、標題の過去、現在、未來の動向を今まで必ずしも論考としては明らかににはなっていなかった大學や人物または學派、つまり「東の文献學」、「西の思想學」ともいわれる日本の人文学研究の独特な系統の流れを汲む「關東學派」「京都學派」などに関しても少し触れながら、現在進行している当該の新しい學問の風潮に至るまでもを含めて概略的ではあるが、明らかにした。これによって今後、斯學の學問の推進

にあたり、少なからぬ参考になることを願って論じた次第である。

また、韓日両国における当該の学問の推進を如何に行うべきかを先学の教示に見倣って、今後の研究に参考になり得ることを論じると同時に、以降の課題として提言した。

Key-word: 「インド学」 「インド哲学」 「文献学」 「日本の仏教学」
「関東学派」 「京都学派」 「共存思想」 「人文学」